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 가톨릭 직장인



VOLUME 308 | MARCH 2023



1805年 出生  
1839年 9月12日 殉教

**崔京煥**  
포란치스코  
聖人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3년 3월호 / 통권 308호

발행일 2023년 3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3©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VOLUME 308 | MARCH 2023

렌즈로 보는 세상	4
함께 읽는 성경	6 요한 묵시록
교회의 가르침	10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14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18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22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26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신앙과 삶	28 신앙에 대한 호감도
듣다 읽다 보다	30 고전 음악을 듣다 36 함께 읽는 세계 문학 44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48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4 정석의 이 도시 60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직장사목팀 소식	66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 THE COVER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그린이: 정도운 엘리아(<http://artist-jdw.com>)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의 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  
윤정민 마틸다

## 요한 묵시록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 1. 요한 묵시록은?

묵시록(默示錄)이란 “말없는 가운데 비밀을 나타내 보인다”는 우리말 표현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결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고 미래를 예언하는 책도 아닙니다. 요한 묵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교회들의 시대적 상황과 문학적 배경 등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묵시록을 통해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여 그릇된 종말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묵시(계시)’는 ‘예언’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원칙적으로 ‘신탁’이라는 뜻이며, 미래에 대한 예지라는 좁은 뜻이 아닙니다. ‘묵시(계시)’는 환시적 성격이 강하며, 이는 역사의 신비를 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책 제목 자체가 요한 묵시록이기 때문에 보통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요한이 실제 ‘사도 요한’이라고 명시된 내

용은 없습니다. 교회 전승들과 묵시록의 내용들로 미루어 저자가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서기 90년대 그리스도교 박해 때문에 파트모스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가 앞으로 예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이상과 환시를 통해 본 것을 기록한 예언서라고 합니다.

### 3. 요한 묵시록의 내용

요한 묵시록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의 재림을 약속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의 기본내용은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권자로 통치하며 최후의 심판인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이후 오게 될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첫 권인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라면 요한 묵시록 22장은 새 하늘 새 땅으로 장엄하게 마무리되는데, 성경의 완결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렇다, 내가 곧 간

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요한 묵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계시는 시련 중에 있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한 위로와 희망의 약속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게 되는 신앙의 증인들에게 약속된 승리의 보상을 예고하며, 그들이 받게 될 행복과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특히 박해가 가혹했던 소아시아 지방 교회 공동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과 죽음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현재 세계의 움직임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며, 아무리 박해를 받더라도 신앙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교회사의 의미, 그 시대와 모든 시대의 박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밝히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이 세상에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들을 예고한 다거나 세기말의 시기를 점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결코 인간의 미래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순례하는 현재의 교회, 승리의 천상교회의 성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맺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 4. 요한 묵시록의 구조

요한 묵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1,9-3,22)으로 교회 전체를 가르키는 상징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동일한 구성과 용어로 엮어졌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신자들에 대한 격려와 칭찬, 꾸짖음과 영원한 상급에 대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첫째 환시들은(4-11장) 유대인 세계에 내리는 하느님의 심판이란 관점에서 교회의 상황을 내다본 환시가 나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5,1-8,5)에 대해 언급되며, 이 책의 봉인을 뚫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으로 구세주이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곱 나팔(8,6-11,18)에 대한 이야기는 일곱 나팔이 울리면서 대재앙이 내립니다.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대적하는 인간 세력과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는 하느님의 마지막 승리를 알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환시들은(12-21장) 교회가 사탄, 악마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관점에서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본질을 묘사합니다. 교회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견한 상황들은 종말에 있게 될 교회의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하느님은 교회의 최종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둘째 환시들에 대한 부분은 천상의 음모와 투쟁(12,1-15,4), 일곱 대접과 그리스도의 승리 (15,5-20,15), 천상 예루살렘 (21,1-22,5), 결론(22,6-22,21)으로 끝맺습니다. ☪

요한 묵시록을 읽어보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 ①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무엇입니까? (1장)
- ②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고 한 교회는? (3장)
- ③ 그 어좌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좌 앞에서는 ( ) 햇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 ) 영이십니다. (4장)
- ④ 나는 ( )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6장)
- 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몇 명입니까? (7장)
- 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울렸고 어좌에 앉아 있던 스물네 원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장)
- ⑦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 )이 나타난 것입니다. (12장)
- ⑧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가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 )이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13장)
- ⑨ “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 )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15장)
- ⑩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 )”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22장)

아래의 말씀들을 한주에 하나씩 외워봅시다

1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 주신 계시입니다. (1,1)

2 주간

나는 또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14,13)

3 주간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5,4)

4 주간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22,20)



##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 성체성사(2)

####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합당한 일치

왕태언 요셉 신부\_ 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성체성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가 어떤 권한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가시적 표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냐를 따져 물으며,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 한다는 성변화(聖變化)의 과학적 설명이나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성변화(聖變化)”의 원리를 인간에게서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찬례가 지니는 ‘거룩한 희생제사’라는 의미를 간과한 채, 인간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희생을 ‘요청’하는 일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인간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신 것은 결코 인간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자유로운 ‘자기희생’ 혹은 ‘자기 비움’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 “현존(現存)”하시고 함께 머무르십니다. 성체성사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언젠가 만나게 될 예수님께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현존(現存)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곧 나와 함께 머무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성사입니다.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것이 그 행위로만 놓고 본다면, 내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이 위대하고도 거룩한 순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양심 성찰을 권고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1코린 11,27~28)’ 그러므로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85항)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이”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구원의 초대’는 당연히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이들이’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느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며,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과 화해하려는 노력 없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므로 영성체를 위한 합당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고해성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가톨릭교회의 성사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이들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하느님과의 화해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해성사의 집전자인 사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해사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 성사의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에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의 교도권에 충실해야 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치유와 완전한 성숙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는 고백자를 자비로우신 주님께 맡겨 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속죄해야 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466항)

신자들의 죄를 듣는 것은 특별한 권한이나 권리라기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고 회개의 길에 동행하며 신자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도록 이끄는 복된 멍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이유는 하느님께서 전하는 용서의 은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멍에인 이유는 죄인으로서 겪는 인간적인 후회와 아픔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성사를 도구로 삼으며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애쓰며 스스로를 정화해 나가는 것이라

는 사실이 성체성사와 그 성체성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한 고해성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로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정한 공복재(空腹齋)를 지켜야 합니다. 몸가짐(행동, 복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님이 되시는 그 순간에 걸맞은 존경과 정중함과 기쁨을 나타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87항)

이러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은 우리가 받아 모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가 무엇인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지는 미사(Missa)는 “영성체”라는 매우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을 향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고 이끌어 줍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하여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사 전부터 시작하여 미사 후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한 합당한 준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 ☩

「가톨릭 직장인」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⑤

‘기본적인 인권들’과 가톨릭교회 사회 교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사실, 누구나 다 그리고 언제나 존중하며, 진심으로 합의하여 법률로 보장한, 모든 ‘기본적인 인권들’을 망라한 목록은 확정된 형태로 실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찾자면, 첫째, ‘인권들’은 본성으로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데, 그 존엄은 ‘정적(靜的)’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力動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의 자기완성(성장)을 포함한 역사의 완성(발전)은 언제나 진행 중이면서 동시에 궁극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야 인간의 존엄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역사의 발전은 완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인권들은 그 자체로 구체적으로 또 끊임없이 계발하여 인식하여 인정하고 존중하며 발전시켜야 할 모두의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권리들을 ‘기본적인’ 인권들로 보고 있을까요? 교회의 가르침은 인권들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들’ 사이의 중요함을 밝힘으로써, 소극적으로는 인권의 침해를 **고발하고**, 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삶을 살도록 그 가치를 **천명합니다**. 물론 교회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정세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는 인권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속해서 고발하는 인권의 영역들로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훼손되는 ‘인권들’, 예를 들어, ‘노동에의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지역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는 ‘인권들’, 예를 들어,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증진되는 인권의 영역들 가운데, 예를 들어, ‘자유권’을 꼽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때 두 요소, 곧 자유의 행사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 공적인 가르침 곳곳에서 일부 인권들의 목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

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일반적으로’ 긍정하는 인권들의 목록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회칙 「백주년」 47항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들 가운데에는 생명이 잉태된 후부터 모체 내에서 발육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생명에의 권리**, 일치된 가정에서 그리고 인격의 발전에 적합한 장소에서 살 권리, 진리 추구하고 그 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지성과 자유를 발전시킬 권리, 그 외에 지상의 물질 재화를 올바르게 취득하여 자신과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할 권리, 끝으로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책임 있는 성생활을 함으로써 자녀를 낳고 기를 권리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권리들의 원천이며 종합적 이해는, 자기 신앙의 진리 안에서 살 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초월적 존엄성에 따라 살 권리로 이해되는 **종교적 자유**이다.”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면, 교회는 ‘**생명에의 권리**’를 모든 권리의 **토대**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교 인본주의’와 ‘인본주의’ 사이의 차이를 성찰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표현 그대로 ‘인간’을 그 자체로 ‘본(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인본주의’는 그리스도를 인간의 ‘본’으로 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따라 ‘생명에의 권리’는 보편적(普遍的)이고 불가침(不可侵)하며 양도불가(讓渡不可)하다고 천명하더라도, 우리 신앙인(그리스도교 인본주의)은 그 생명에의 권리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그렇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생명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음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결국에는 이른바 ‘죽음의 문화’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례로서 **경제 영역의 권리**로서 ‘노동의 권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휴식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때, 말하자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개인이든(자영), 사회든(기업), 국가가 일자리를 줄이거나, 그나마 그 일자리에서 적절한 휴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호에서 소개한 인권들의 ‘불가분성과 전체성’이라는 특성을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치 차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기를 통치할 이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로서 ‘보통 선거권’을 듭니다. 그래서 선거를 흔히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주권이 ‘딱 하루만’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인격의 주체로서 시민의 권리가 존중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득표(권력 획득)에 필요한 ‘숫자’(도구)로 여겨졌다고 느낀 탓일 것입니다.

‘종교적 자유의 권리’는 ‘자유권’과 ‘평등권’과 ‘연대권’의 종합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권리를 수렴하는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적 의미의 ‘종교(宗敎)’를 소개합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를 뜻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들은 ‘체계(體系)’와 ‘초자연(超自然)’입니다. 흔히 종교를 이해할 때 우리는 사회 안에 존재하는 ‘체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스도교(敎),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유교 등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지성으로도 또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체계들은 역사적으로(시간)나 지역적으로(공간)도 제한을 받아 그 부침(浮沈)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생각하더라도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자연’ 또는 초월성(超越性)과 ‘체계’ 사이의 그 관계는 마치 ‘물과 그릇들’ 사이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이 관계는 사람과 사회의 생활에서 ‘목적과 수단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 체계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위의 사전적 의미를 되풀이하면, 문화 체계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생활’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듯이, 인간의 생활은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 분야에서 현실적 고뇌가 발생하며, 그 규모와 정도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정치’, ‘경제’, ‘문화’ 분야들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달성했으며 상당한 수준의 자유를 행사하지만, 그 물질적 풍요에 예속됨으로써 또 책임과 의무 수행을 가버리 여김으로써, 인간다운 사회로 나아가기보다는 정신적으로는 빈곤하며, ‘품위 있는 공생과 공존’의 사회보다는 ‘투쟁의’ 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우려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문화’의 영역을 특별히 강조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문화 체계’가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도 그 의미입니다. 정치 분야든 경제 분야든 그 공통 목표는 ‘인간 생활’입니다. 문화생활은 그 생활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종교성’에 관한 태도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과 그 기술’ 등의 그 ‘사물(事物)’의 토대를 ‘가변적이며 유한하며 불완전한’ 그 무엇에 두며 그 안에서 총만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불변하며 무한(영원)하며 완전한’ 그 무엇(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두며 그 안에서 총만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종교성’이란 후자의 관점을 인정하면서, 그 초월성에서 모든 현세 사물의 근본 토대를 찾고 그 안에서 삶의 총만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를 ‘인간의 초월적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생명에의 권리’와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은 두 권리가 ‘인간 존엄’을 직접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찾아내어 발전시킨 모든 기본적인 권리들(자유권, 평등권, 연대권)을 수렴(收斂)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이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분을 향한 신앙애(信望愛)의 덕으로 부르심을 받은, 또 하느님의 소명(인간의 존엄 증진, 사회의 쇄신 - 이웃을 향한 사랑과 책임)에 응답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명도회장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티노, 1760-1801) 복자(2)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지난호에서는 정약종 복자의 생애를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저서로 남겨진 최초의 한글 교리서 『주교요지(主教要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교요지』는 정약종에 의해 편찬된 이후 1932년 출판본으로 개정되기까지 100여년을 넘게 신자들에게 읽히는 한글교리서였으며, 상편 32장 · 하편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교요지』 상편은 천주교 교리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 존재 증명(1-5장)과 신의 속성(6-13)을 이야기하고, 삼위일체(14)로 신앙의 대상인 천주(天主)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합니다. 다음으로 천주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천주와 푸른 하늘이 서로 다름을 이야기합니다(15-16). 이어서 『주교요지』만의 독특한 부분으로, 당대 조선에 있던 다른 종교들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것은 도교(17), 불교(18-27), 무교(28)에 대한 이해와 비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선벌악(賞善罰惡, 29장)과 영혼불멸(30-31장)을 논하

고, 상편의 결론으로 천당지옥설(32)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대목을 직접 한번 읽어 볼까요?

**1. 인심(人心)이 스스로 천주 계신 것을 아나니라**

“무릇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봄에 그 위에 임자(主)가 계신 것을 아는 고로 질통고난(疾痛苦難)을 당하면, 양천축수(仰天祝手)하여 면하기를 바라고, 번개와 우뢰를 만나면 자기 죄악을 생각하고 마음이 놀랍고 송구(悚懼)하니, 만일 천상에 임자가 아니 계시면, 어찌 사람마다 마음이 이러하리오?”

옛날 말투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대부분의 신학 서적들은 신(神)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여, “신에게서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서술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나 『주교요지』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동양에서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종은 그렇게 조선인을 향해서 그 마음에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 천주(天主)를 가리켜 “임자”로 설명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한글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도 쓸 데가 없다.” 김대건 신부님도 하느님을 가리켜 “임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본 주인인 “천주=임자”를 알지 못하면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느님을 가리켜 “임자”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신앙이 담겨 있는 고유한 호칭입니다. 이를 “임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출처는 바로 정약종의 『주교요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하늘을 보고 그 위에 “임자”를 알

아보는 것은, 사람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약종은 임자를 발견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른바 신 존재 증명을 시작합니다. 다음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 만물이 스스로 나지 못하나니라**

“천지 만물이, 제 몸이 [제] 스스로 낳는 일이 없어, 초목은 열매 있어 씨를 전하고, 짐승은 어이(=어미) 있어 생겨나고, 사람도 부모가 있어 생겨나니,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그 부모는 조부모에게로부터 낳는 것이니. 차차 올라가면, 분명히 시작하여 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 사람을 누가 낳았을꼬... 처음 난 초목은 초목이 초목을 낳음이 아니요, 처음 난 짐승도 짐승이 짐승을 낳음이 아니라, 초목과 짐승과 사람을 도무지 내신 이가 계시니, 이를 천주라 이르나니라.”

위의 대목을 단순히 “자연발생설 혹은 진화론이나, 아니면 창조론이나”라고 이원화시켜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약종은 당시에 나와

있는 한문 교리서를 통해 세상의 창조주가 “천주”임을 확신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천주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 신자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었던 나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이 하느님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자연적으로 갑자기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천주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까?

### 3. 만물이 절로 되지 못하나니라.

“여기 큰 집이 있으니, 아래에 기둥을 세우고 위에 들보를 얹고, 사면에 벽을 맞추고 앞에 문을 내어 풍우를 가리워야 사람이 몸을 담아 편안히 있으니, 이 집을 보면 어찌 절로 되었다 하리오? ... 천지도 또한 이 집과 같아, 하늘로 덮고 땅으로 싹고 일월(日月)로 밝히고... 이런 천지 같은 큰 집이 어찌 절로 되리오.”

조선 유학자 신후담은 『천지실의』를 비판하면서 “천지의 개벽(開闢)이 사람이 사는 집을 만들어 내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 유학은 ‘태극(太極)이 양의(兩儀) 곧 음과 양을 낳아서, 이른바 기운(氣)에 따라 음양오행이 움직이면서 만물이 순환적으로 지속된다’고 믿고 있었습니

다. 신후담은 천지 개벽을 쉽게 논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태극도설의 원리에 따라 이미 주어진 만물의 순환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천주교는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우주의 생성 기원을 장인(=창조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열리면서 우주가 생성될 때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창조주가 만들어서 형성되었을까요?

### 4. 하늘이 움직여 돌아감을 보고 천주 계신 줄을 알 것이니라.

“지각없는 것이 어찌 스스로 돌아가며, 돌아간들 어찌 절로 도수(度數)에 맞으리오. 반드시 지극히 신령(神靈)하고 능한 이가 잡고 돌려야 돌아갈 것이니, 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는 이 천주이시니, 이 물레와 수레의 돌아감과 같이 이 만물도 또한 임자(主)가 계시어 안배(按排)하시고 다스리는 줄을 알 것이니라.”

인류는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확인하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사고를 통해서 천체물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천체가 돌아가는 모습 중에 지구와 달은 참으로 오묘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해머던지기 선수가 해머를 꼭 잡고 돌리듯이 달은 지구 주위를 정확히 앞만 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음

력에 의하면, 꼭 보름달을 거쳐서 정확히 한 달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태양과 별, 혜성 등 그들의 고유한 주기를 가지고 별과 별 사이를 돌아갑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부여해 준 법칙일까요?

### 5. 사람이 반드시 천주로 말미암아 낳으니라.

“장인(匠人)은 그릇을 제 재주로 만들기예 그릇 만드는 묘리(妙理)를 알거니와, 사람은 자식을 낳아도 그 이목구비(耳目口鼻)와 오장육부(五臟六腑)의 되는 묘리를 누가 능히 알리오? 오직 천주 영(靈)하신 슬기로 마련하시고 알으시나니라.”

창세기에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어낸 것이 첫 사람 아담입니다. 그 후 인류는 번성하여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약종은 사람이 태어나는 원리가 단순히 약육강식의 동물이나 식물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이 부여해주시는 섭리와 묘리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천주(天主)를 임자로 설명하면서 만물의 근원이자, 섭리로 설명하면서 신 존재 증명을 마치고, 천주는 한 분이시고(유일신), 스스로 계시고(자립자), 시작도 마침도 없으신 능하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천주의 존재와 속성을 설명한 다음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이어집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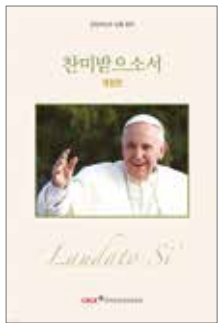
### 묵상

정약종 복자가 꿈꾸던 사회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정약종은 살아 있을 때 노비에게 속전을 베풀기도 하고, 자신의 하인 임대인에게 십계를 가르쳐 천주교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동생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통해서 올바른 목민관의 자세를 제시해주었다면, 복자 정약종은 생명의 근원과 종향(終向: 궁극적인 목적)이 천주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 세대 간 정의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주어질 어려움에 관심을 두고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겪게 될 이들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입니다.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세대는 기후변화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오늘날 생태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세대 간의 불평등에 주목하고 “세대 간 정의”(159~162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 기후 세대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행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를 아시나요?

툰베리는 여덟 살이 되던 2011년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듣고 난 뒤,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기후변화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절망감에 빠졌던 툰베리는 2018년 여름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을 나가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인 시위’를 벌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나는 한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시 열일곱 살 소녀의 이 작은 행동은 전 세계 청소년 수백만 명이 기후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세계적 생태 환경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조직화된 ‘청소년 기후 행동’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하며,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기후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살게 될 젊은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에는 기후 위기 당사자의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 현재 세대의 책임

건강한 지구를 물려달라는 미래 세대의 간절한 호소 앞에서 저는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강조한 ‘세대 간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회칙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구라는 공동의 집은 “각 세대가 빌려 쓰는 것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159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창조세계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주어질 선물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점에서 세대 간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159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의 윤리적 책임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관심사에만 매달려 생태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배출되면 짧게는 십수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분해되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걸리는 플라스틱, 결국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잔해와 황무지와 쓰레기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161항).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문제를 떠안게 되는 미래 세대는 우리를 원망하며 위험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우리의 손자들이 혹시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위험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요?” “할머니는 이런 슬픈 사실들을 알고 난 다음엔, 무엇을 하셨나요?”

현재 세계는 과거부터 인류가 선택한 것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세계는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께 정원을 선물 받았는데 아이들에게 사막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깨달은 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회칙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160항).

###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만을 걱정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160항). ‘희망’만 이야기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자식에게 빛을 남겨 주려 하지 않듯이, 우리가 책임 있는 세대가 되려면 미래 세대에게서 미리 앞당겨 쓴 것을 갚아가며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갓고 살아야 합니다. 산업화 이후 우리가 외적인 발전을 ‘더하는데’ 주력해왔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는 ‘덜셈’ 대신 ‘뺄셈’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태 발자국’을 줄여나가며 미래 세대에게 적은 부담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세대 간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기성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에는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행동하는 ‘그레이 그린’(생태적 목소리를 내는 노인층)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60+ 기후행동’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함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선명한 구호를 큰 목소리로 외치는 젊은이들의 기후 행동과는 다르게, 느리지만 현장감 있는 접근 방식으로 행동하겠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 현장을 찾아 ‘웅성웅성’ 거리고 ‘어슬렁’ 대겠다는 것인데요. “손주들이 살아갈 지구, 우리가 지킵시다!”라고 적힌 팻말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분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제가 사는 대구 남산동 신학교와 교구청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른 봄에 유난히 눈에 띄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바로 ‘목련’입니다. 이 나무는 유난히 일찍 하이얀 꽃을 피우며 봄 소식을 전하는데, 수십 년째 제 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이 나무를 심은 사람 덕분에 우리는 봄이 오는 모습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의 행동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를 실감했던 지난 겨울, 누가 이렇게 묻더군요. “과연 미래 세대의 ‘미래’는 있을까요?” 잊지 마시다. “미래 세대에게 살 만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160항).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성녀 콜레타

St. Colette (축일: 3월 6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 작은형제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인 니콜라스, 니콜라오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성녀 콜레타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이 니콜라오라는 이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니콜라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니콜라스(Nικόλαος)인데요. 그 뜻이 한 마디로 ‘백성의 승리’(Victory of the people)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축약형이 바로 니콜레트, 콜레타이기에, 그녀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그녀를 통한 하느님 겸손의 승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녀의 일대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Picardie) 지방 코르비에서 1381년 1월 13일에 태어난 성녀의 본명은 본디 니콜레트 부아레(Nicolette Boilet)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호성인인 성 니콜라오(12월 6일)에게 기도를 해서 얻은 딸이기 때문에, 니콜라우스의 여성 축약형으로 니콜레트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였던 로베르 부알레(Robert Boilet)는 그 지역의 베네딕토회 수도원에서 목공수로 일했기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수도승 생활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어린 시절부터 수도자로서의 관심과 부르심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7세에 갑자기 양친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 베네딕토회 수도원 원장의 도움으로 잠시 다른 수녀원에 머물다가, 재속 프란치스코회원(3회원)이 되었고, 1402년 9월 17일 성 프란치스코 오상축일부터는 베네딕토회 수도원 인근에 은둔소를 짓고 은수자로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21살부터 그녀는 홀로 은수생활을 하였는데, 어느날 코르비의 자신의 은둔소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환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환시 중에 클라라회가 초창기 정신에 따라 살도록 개혁하라는 메시지를 성 프란치스코가 자

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자신의 은둔소를 떠났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3세는 1405년 8월 29일 교황 칙서를 통해 그녀가 클라라회 회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고, 기존 수도원의 개혁과 새로운 수도원 설립을 사명으로 정식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이든지 개혁은 항상 반발과 조롱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처음에 그녀가 그 지역 클라라회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기존 클라라회 수녀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창기 성 프란치스코의 가난·청빈 정신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해이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407년 성녀 클라라의 회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녀원을 설립하였으며, 가난과 단식을 실천하는 클라라 수녀원을 세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프랑스 지역 내에서 이런 엄률수도를 원칙으로 하는 수도원을 17개나 세웠고, 이후에도 많은 수도원들을 원천적인 청빈 카리스마로 개혁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나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은 전무했으나, 100% 믿음의 힘과 성덕으로, 또한 뒤도 돌아보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철저하고 겸손한 순종으로 개혁이라는 큰 고난에서 승리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447년 3월 6일에 평화로이 선종하였습니다.



다. 콜레타 성녀가 세운 개혁 클라라수녀회는 오늘날에도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으며, 성녀를 통한 엄격한 청빈은 프란치스코 카리스마의 핵심을 되살려놓은 것입니다.

가난이란 더욱더 미래지향적, 내세 지향적, 가치 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촉매하는 미덕입니다. 과연 우리는 겸손한 승리, 조용한 혁명,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벌이고 있는지요? 오늘날 아버지 하느님을 정말 철저하게 100% 신뢰하는 영혼이 도리어 더 희귀해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인데도 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현세에서의 삶도 그분의 작품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강화하도록 합시다. ☪

## 신앙에 대한 호감도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2. 삶을 바라본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2022 종교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종교 호감도는 불교가 가장 높았다(47.1점). 천주교는 두 번째로 45.2점을 기록했다. 응답자 중 천주교에 부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과 긍정적 감정을 가진 이는 37%와 36%로 비슷한 비율이다. 천주교 신자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갖는 호감도 평가는 66.5점으로 지난해보다 9.5점 떨어졌다. 또 개신교와 불교 신자, 무교인 모두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 역시 40점대로 나타났다.

종교 자체가 아니라 해당 종교를 믿는 신자, 성직자들에 대한 호감도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 순서로 비슷했지만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구성원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50점 이하였다. '종교가 개인과 사회적 삶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에는 "영향을 준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로, 지난해보다 4% 줄었다. 매우 영향을 준다는 이들은 9%,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들은 26%였다. 종교가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았다. 종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안정감(79%), 긍정적 감정(75%), 인간관계(74%), 소속감(70%), 윤리적 행동(70%), 올바른 가치관(64%), 정체성 확인(57%)" 등에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천주교 신자의 종교 활동은 지난해보다 5% 낮아진 20%가 매주 참석한다고 답했고, 32%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 1회 미만은 23%,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들도 거의 절반에 이른다. 남성보다는 여성, 40대 이하보다는 50대 이상의 종교 활동 참여율이 높았고, 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55%) 본인의 삶에서 종교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2022년 12월 14일자]

### Question

신앙생활(믿음)이 내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경험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히브리서 11장 1절~3절, 6절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나누어 봅시다.

###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느님께 귀의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전체에 대하여 자유로이 동의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께 인

격적으로 귀의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인간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 자신을 하느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한 믿음을 피조물에 두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0항]

신앙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훌륭한 전투를 수행하십시오.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산 당하였습니다."(1티모 18-19).

신앙 안에서 살고, 성장하고 마지막까지 항구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키워야 하며, 주님께 신앙을 키워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 신앙은 "사랑으로 행동"(갈라5,6)하고, 희망으로 지탱되며, 교회의 신앙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항]

### 5. 실천계획을 세운다.

###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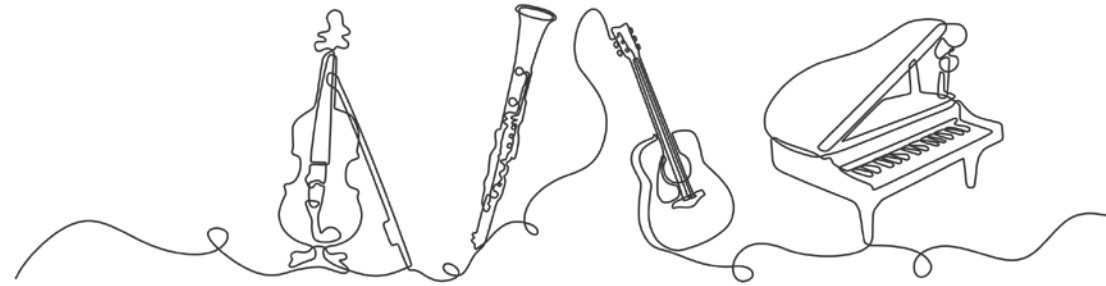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Op.47과  
'북극곰을 위한 폴로네이즈'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누군가 시벨리우스의 음악은 자연의 소리로 기후 위기의 시대에 들을 가치가 있는 곡이라고 했던가? 지난 호의 끝부분에 장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1865-1957)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악장의 제2주제로 사용된 '슬픈 왈츠'와, 마지막 3악장의 론도주제 '북극곰을 위한 폴로네이즈'를 언급만 하고 '겨울에 듣는 음악'으로 소개하면서 지면상 서둘러 끝냈다. 평론가들이 시벨리우스의 음악에 대하여 '얼음같이 차가우면서도 뜨겁게 녹이는 겨울음악'이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 예를 들면 '얼음', '겨울', '북극곰'의 공통분모는 다 같이 자연이다. 요즈음 황사와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더욱 귀가 솔깃해진다.

우선 시벨리우스는 자연 속에서 살았다. 39세(1904년)부터 생의 마지막(1957년)을 보냈던 집, '아이놀라'(Ainola; 부인 Aino의 이름을 딴 집)로 현재는 시벨리우스 박물관)는 헬싱키에서 기차로 약 40분 거리(북서쪽 방

향) 애르벤파(Järvenpää)에 있다. 주위는 투술(Tuusul)호수와 숲이 전부다. 요즘 말하는 '전원주택'이라고나 할까? 아직도 대중에 회자되는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의 시 귀절에 나와 우리에게 친숙한 영국의 여류작가 버지니아 울프(1882-1941)도 런던에서 45km 남쪽 우즈강이 흐르는 시골로 이사('Monk's House'라 명명한 집)하여 생을 마감하였는데, 거기서 5km만 더 내려가면 영국 남부 브라이튼의 멋진 바다가 나온다. 시벨리우스의 자연은 꿈 속의 자연이 아니라, 멜빌의 '백경'이나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처럼 거친(이런 의미에서 '추운 겨울'의) 자연이지만, 그 스산함으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신비로운 자연이기도 하다. 스산하게 추우면서도 신비로운 자연은 한편 우리의 삶과도 닮았다. 고독하지만 허무하기도 하며 의미가 깊기도 한 신비로운 우리의 인생!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한 맺힌 뜨거운 가슴으로 두껍게 얼어버린 북극을 녹여낸다.



바이올린 협주곡의 제1악장은 D단조의 '소나타형식'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독창적인 전주로 시작된다. 형식을 싫어한 시벨리우스는 전형적인 전주 대신에 일종의 '알림(opening gesture)'을 '피아니시모로 악음을 단 현악'으로 섬세한 떨림을 준다. 처음부터 우리를 몽환적 분위기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바로 네마디째 만에 제시부의 제1주제가 솔로 바이올린으로 나온다. 이때 비브라토를 일부로 사용하지 않아 그 신비함을 더하는 연주자들도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 솔로 바이올린의 제1주제는 처음에는 클라리넷이 에코를 울려서 '천사(angel)' 같지만, 나중에는 긴장 끝에 떨리는 배경으로 '악마(devil)'로 바뀐다. 어두운 음색의 목관이 에코를 울리다가 한참 상승하는 솔로 바이올린을 오케스트라(팀파니가 공격적으로)가 "다 덤!" 들어오면서 마치 가위로 잘라내듯 "컷오프"시킨다.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섬뜩함이 느껴진다. 그 후 바이올린이 상승하면서 빠른 '비루투오조적'으로 줄달음치며 마

치 '미니 카덴차' 같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2주제가 나오는데, 중간에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슬픈 죽음의 왈츠(Valse Triste)가 B $\flat$  장조와 B $\flat$  단조를 오가며 흐른다. 제2주제도 제1주제에서 유래하였기에 크게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시벨리우스의 소나타형식은 고전악파의 소나타형식과는 벌써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다. 경과부조차 카덴차를 사용한다. 그리고 시작되는 발전부는 시벨리우스에게는 '제시부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발전부가 아니라 <제시부의 확장>으로 보기도 한다. 특별히 다른 협주곡과 다르게 카덴차가 두 번 등장한다(앞서 말한 '미니 카덴차' 말고도!). 제1악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독주 바이올린의 카덴차가 발전부로 활용되는 점이다. 카덴차는 발전부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시벨리우스만의 독특한 변용이다. 보통 다른 작곡가의 협주곡에서 카덴차는 1악장을 종결짓기 전에, 즉 코다 직전에 삽입되며, 관현악은 멈추고, 순전





**Nielsen & Sibelius: Violin Concertos**

Johan Dalene (violin)  
 Royal Stockholm Philharmonic Orchestra, John Storgårds  
 Release Date: 1st Apr 2022  
 Catalogue No: BIS2620  
 Label: BIS  
 Length: 73 minutes

히 독주자 홀로 연주한다. 다시 말해서, 협주곡에서 카덴차는 독주악기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시벨리우스는 소나타 형식의 전형적인 발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카덴차를 발전부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첫번째 카덴차’는 16분음표의 연속으로 “반항의 울음(비명)”이다. ‘두번째 카덴차’는 특히 독주자에게 어려운 테크닉이 요구된다. 재현부도 전통적인 소나타형식의 답습을 거부한 시벨리우스는 D단조(홈키) 대신에 ‘G단조’를 써서 다르게 만들었다. 이 곡은 D단조 협주곡이 아니었던가! 홈키로 돌아오지 않는 반항아 시벨리우스! 마지막을 오케스트라 총주 한 방으로 시원하게 끝낸다. 이제 우리의 험난했던 여정이 종착점에 도달하였음을 알려준다고나 할까.

제2악장은 느린(Adagio Di Molto) 악장으로 3부 형식(A-B-A')이다. 어찌보면 가장 핵심적

인 악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치 두 사람이 상대방의 눈동자를 서로 응시하는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는 악장이다. 그렇기에 솔로 바이올린은 항상 상행(오르기만)하는 선율로 그 뜨거움을 표현한다. 제2악장의 마지막은 솔로 바이올린의 일정한 선율이 지속되면서 끝난다. 우리가 아멘으로 마치는 기도과 같아서, 마치 시벨리우스만의 ‘아멘 종지(Amen Cadenza)’와 같다.

이제 마지막 제3악장이다. 자유로운 론도형식(A-B-A'-B'-코다)이다. 3/4박자의 춤곡으로 ‘북극곰을 위한 폴로네이즈’ 또는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라고 불리는 론도 악장이다. 교대로 돌아오는 A부분과 B부분 모두 춤이다. 여기서 춤B는 왈츠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춤A를 위한 경과부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춤의 리듬감은 거의 없다. 그 어려운 ‘변박자(헤미올라 hemiola)’를 사



**Beethoven & Sibelius: Violin Concertos**

Christian Tetzlaff (violin)  
 Deutsches Symphonie-Orchester Berlin, Robin Ticciati  
 Release Date: 13th Sep 2019  
 Catalogue No: ODE1334-2  
 Label: Ondine  
 Length: 71 minutes

용하였기 때문이다. 3악장은 두 음의 팀파니 두드림으로 시작된다. ‘팀파니 롤(계속 쉬없이 두드리는 것을 의미함)’이 지속되면서, 다소 ‘말발굽 소리를 연상케 하는 목직함 리듬(팀파니와 베이스 위주 저음현 모두)’이 “단다가 단다가 단다가”하며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4마디를 연주하여 ‘정열적인 춤곡’이라는 티를 낸다. 솔로 바이올린이 그 리듬과 동일하게 3/4박자로 ‘에너지를 실어서’ ‘32분 붓점음표’로 강렬하게 받는데, G선에서 시작하여 고조되어 2옥타브까지 올라가 E선에서 주제선율을 똑같이 받는다. 스타카토와 더블스탑(double-stop)(두 줄을 동시에 연주하는 현악기 기법)을 반복하는 거의 기계체조 수준의 묘기를 보여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솔로 바이올린이 3연음의 춤B를 마치 경과부처럼 활용하여 마침내 코다로 간다. 오케스트라 전체의 총주로 “긴겨울은 가고 없다. 광대하였던 얼음땅은 격파

되었다(The long winter night is over - the whole Earth cracks!)”를 알린다!

요즈음 기후 위기의 시대에 흔히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대자연의 소리’라고 평가하는 평론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으로 한 곡을 음악적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우선 시벨리우스의 음색은 이 곡의 서주부터 무척 신비롭다. 안네 소피 무터는 시벨리우스의 신비한 음향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브라토를 쓰면 훨씬 풍요로워지는 음색을 포기하고 일부러 현의 비브라토를 쓰지 않았다. 떨림을 배제해버린 가는 소리는 우리를 깊은 곳으로 안내한다. 청중도 내면의 깊은 곳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침잠해야 한다. 우리가 홀로 마음을 비우면 평소 산에서도 안들리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도 같다. 평소에는 못들었던 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 심지어 나뭇잎이 살랑이는 소리 등등



**Tchaikovsky & Sibelius Violin Concertos**

David Oistrakh (violin), with Vladimir Yampolsky (piano)  
 Philadelphia Orchestra, Eugene Ormandy  
 Release Date: 3rd Nov 2017  
 Catalogue No: ALC1354  
 Label: Alto

온갖 소리가 다 들리면 우리는 비로소 그 신비로움을 깨닫는다. 평론가의 말처럼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대자연의 소리라고 느끼려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고독해져야 한다. 삶의 끝인 죽음과도 대면해야 한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에게 도인과 같이 고독 속에서 평정심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의 절대고독의 순간에 들어서면 평범한 우리에게는 응어리진 한도 있을 것이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는 그 응어리가 뜨거움으로 솟구친다. 차갑고 신비로운 음향 속으로 분출하는 뜨거움이 있다. 시벨리우스의 분노와 한은 죽음을 앞둔 ‘슬픈 왈츠(Valse Triste)’에도,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의 폴로네이즈에도 있다. 왈츠나 폴로네이즈나 시벨리우스의 조국 핀란드의 고유한 춤곡은 아니다. ‘왈츠’는 합스부르크의 빈을 대표하는 춤곡이고, ‘폴로네이즈’는 쇼팽이 즐겨 썼던 폴란드의 춤곡이다. 흔히 시벨리우스하면 ‘핀란

디아’와 같은 민족주의 음악을 떠올리지만, 시벨리우스는 초기를 지나 음악적 여정이 깊어지면서 서서히 민족주의적 색채를 ‘대자연의 소리’로 대체해 갔다. 왈츠도 폴로네이즈도 자연의 춤이 되어갔다. 시벨리우스의 폴로네이즈는 무겁고 둔탁하여 사람이 아니라 ‘북극곰’이 추는 춤이다. 시벨리우스의 화성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움’은 우리를 절대고독으로 안내하여 추운 겨울을 연상시킨다. 비발디의 ‘겨울’처럼 사람들이 벽난로를 끄는 겨울이 아니다. 한겨울의 추운 대지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동물은 인간이 아니라 ‘북극곰’이다. 시벨리우스의 3악장 론도주제 ‘북극곰을 위한 폴로네이즈’는 이렇게 신비롭지만 고독한 음악이다.

현재 연주되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1903년의 처음 제1버전이 아니라 1905년의 제2버전이다. 브람스의 멘토로 알려진

당대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Joseph Joachim, 1831-1907)까지 나서서 비판할 정도로 제1버전의 초연은 처참하게 실패하였다. 지난 호에서 설명하였듯이, 연주자가 그 난해한 기교를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시벨리우스는 제2버전을 만들면서 솔로 바이올린의 기교를 줄이고 좀 더 교향학적 색채를 가미하였고, 이번에는 기교를 소화해낼 수 있는 독주자를 고를 수 있었기에 비로소 만회할 수 있는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 곡은 시벨리우스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실패한 자신을 보상하는 자신만의 곡이었다. 마치 자신이 꿈 속에서 연주하듯, 염두에 두었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는 거절을 하였기에 독주자를 고르기가 정말 힘들었던 결과였다. 시벨리우스는 제1버전의 대참사에 가까운 실패 후, 제2버전으로 2년간 개작하기까지는 술로 지새웠고, 결국 후두암의 원인이 되었다. 이토록 이 곡은 실패한 바이올리니스트 시벨리우스 내면의 울분과 꿈이 방울방울 맺혀있다. 그래서 혹자는 술 한 잔 마시고 이 곡을 들어야 한다는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 그래서 북극곰의 둔탁한 폴로네이즈는 ‘북극의 두터운 얼음을 깨는’ 춤이기도 하다. 문득 미치 앨범(Mitch Albom)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Tuesdays with Morrie)’이 떠오른다. 미국 브랜

다이스(Brandeis)대학 사회학 교수 모리 슈워츠(Morrie Schwartz)의 실화이다. 그의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 루게릭 병을 앓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리 교수를 우연히 TV에서 보게 되었다. 제자는 매주 화요일 사회학이 아닌 인생 강의를 듣는다. 미국의 베스트셀러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모리교수는 대학 앞 광장에 있는 술집에서 학생들과 어울려 춤추는 취미를 갖고 있다. 디스크자키는 한 곡은 그를 위해 늘 탱고를 틀어준다. 제자가 온전한 육체로 하루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늘 좋아하는 음식으로 아침을 먹고 지인들을 초대하여 점심을 먹은 후 공원산책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탱고를 추고 싶다고 답한다. 시벨리우스의 ‘북극곰을 위한 폴로네이즈’는 모리 교수의 탱고일 것이라. ☺

함께 읽는 세계 문학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수전 아불하와의 『예년의 아침』과 팔레스타인인의 눈물

왕은철 미카엘 전북대학교 영문과 석좌교수

인간만이 아니라 이야기도 차별의 세계에 산다. 세상은 어떤 이야기는 들어주고 어떤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 이야기들을 수용하는 방식도 전혀 공평하지 않다. 강자의 이야기는 밀려오고 약자의 이야기는 밀려난다. ‘이야기 전쟁, 담론 전쟁’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은 전쟁이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의 수난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시, 소설, 드라마, 영화, 회고록, 전기 등 장르를 불문하고 널렸다. 홀로코스트 이야기는 유대인 학자 노먼 핑켈스타인이 “홀로코스트 산업”이라고 냉소적으로 표현할 만큼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그들이 강자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강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세계인의 머릿속에 영원한 희생자로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야기 전쟁, 담론 전쟁에서도 승리한 셈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중 아이러니는 희생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가해자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나치가 자신들에게 했던 행위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하면서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바로 이 순간에도 그러하고 있다. 그런데 고통이 많으면 할 이야기도 많을 텐데,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들이 약자라서 그렇다. 그들은 조르지오 아감벤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벌거벗은 생명”이다. 세상은 “벌거벗은 생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들이 “벌거벗은 생명”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서 더욱 그렇다. 인간은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이야기를 믿는 동물이다. 이야기가 없으면 언젠가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거나 믿지도 않을지 모른다. 이야기가 없는 민족이나 인종은 늘 그렇게 기억 밖으로 사라진

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집트로 갔다가 미국에 정착한 팔레스타인 학자 에드워드 사이드는 생전에 팔레스타인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무척 애석해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불후의 명저를 쓴 그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각박하고 폭력적인 현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야기마저 없으니, 팔레스타인인들은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실존에 관해 호소할 길이 없다. 세계인의 양심을 건드릴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실존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그들에게는 고통당하는 몸만 있고 그 몸이 내는 고통의 소리를 담아내는 그릇, 즉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지면서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수십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의 삶을 살아왔다. 고향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거나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이후의 세대는 난민촌에서 태어나 난민촌 외에는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난민촌이라 하더라도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세상 어디를 가도 난민촌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현재, 요르단 서안에 있는 예년 난민촌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의 총에 맞아 죽으면서 요동치고 있다. 그곳은 폭력과 고통과 눈물이 쌓이는 곳이다. 그게 난민촌이다.



예년의 아침  
수전 아불하와 저 | 왕은철 번역  
푸른숲 | 2013.12.13



파르하, 2021  
드라마  
요르단,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92분

수전 아불하와의 『예닌의 아침』은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식민주의 폭력에 시달리는 요르단강 서안의 예닌 난민촌을 배경으로 4대에 걸친 팔레스타인인 가족의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작가가 1941년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예전에 살았던 단란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1941년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전에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였다. 하이파 동쪽에 있는 예인 호드 마을 사람들은 세상 누구나가 그러하듯 사랑하고 갈등하며 대를 이어나가고 이웃들과 같이 웃고 울며 살았다. 그들의 평화로운 삶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 70여 만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고향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폭력에 떠밀려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들의 집은 유대인의 집이 되었고, 그들의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의 올리브 나무가 되었고, 그들의 마을은 유대인의 마을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경배하던 사원 중 일부는 소설에 따르면 유곽이 되었다. 영토적, 문화적, 신체적 침해가 일어난 것이다.

소설의 중심에 있는 아불헤자 가족도 다른 예인 호드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향에서 쫓겨났다. 그 와중에 그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6개월 된 아이를 잃는다. 하산과 달리아의 둘째 아들로 오른쪽 눈 주변이 길게 찢어진 아이였다. 그의 형인 유세프가 무심코 아이를 안았다가 몸부림을 치는 아이의 무게에 놀라 떨어뜨리는 바람에 침대에 박힌 못에 얼굴이 스쳐 상처가 난 아이였다. 조금 전까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던 그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아이는 이스라엘 군인이 낚아채 데려간 것이었다. 모두가 쫓겨나는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엄마의 품을 떠난 이스마엘은 유대인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했다. 팔레스타인인이 유대인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군인의 아내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다. 가족이 나치한테 죽고, 그녀는 나치에 능욕당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 남편은 그런 아내가 너무 가엾어서 아이를 훔쳐 선물로 줬다. 아이의 엄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또 찾으며, 아이를 찾을 줄 모르는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책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치매까지 걸려 죽었는데, 그들은 아이를 도둑질해서 단란하게 살았다. 이스마엘, 아니 다윗은 그들을 친부모로 알고 성장해 나중에는 군대에 갔다. 그는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빼앗을 수 있도록 시리아인들을 자극해 공격을 부추기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검문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형 유세프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상급자인 장교가 그를 닮은 팔레스타인인을 가리키며 “이리 와서 저 아랍 개자식 좀 봐. 너와 쌍둥이처럼 닮았어!”라고 말하면서 비웃던 일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팔레스타인인이었다. 상대는 그에게 “당신 이름이 이스마엘인가요?”라고 물었다. 유세프는 자신을 닮은 다윗의 눈 주변에 난 상처를 보고 그렇게 물은 것이다. 자신과 닮아도 너무 닮은 데다 상처까지 똑같은 부위에 있으니 틀림없는 동생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동생이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윗은 상대의 생김새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도 싫고, 자신에게 “아랍놈”과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며 빈정거리는 장교도 싫고, 자기한테 이스마엘이 아니냐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는 팔레스타인인도 싫었다. 그래서 유세프의 얼굴을 때리고 개머리판으로 몸을 치고

발로 차서 결국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자기도 모르게 형을 때리고 진실을 때린 것이다.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었다. 그가 팔레스타인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였다. 그의 부모는 죽기 전에 그에게 팔레스타인인 부부에게서 그를 납치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다.

2006년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이 소설의 제목은 『다윗의 상처』였다. 이스마엘/다윗의 상처를 환기하는 제목이었다. 그렇다고 이스마엘/다윗이 소설의 중심인 것은 아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예닌의 난민촌에서 서글픈 삶을 살아가는 이스마엘의 부모와 형제들이 중심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마엘이 납치되고 가족이 예닌 난민촌에서 살면서 태어난 아말,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중심이다. 작가가 제목을 “다윗의 상처”라고 한 것은 이스마엘/다윗이 중심은 아니어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몸과 마음에 난 상처를 은유하는데 적합한 제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인 부부가 유대인에게 아이를 빼앗긴 것처럼, 팔레스타인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이스마엘이 납치당했듯 땅과 나무와 숲과 고향이 유대인들에게 납치당했다. 그래서 이스마엘/다윗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팔레스타

인인들의 집단적인 상처를 은유하는, 프레더릭 제임슨이 말하는 “국가적인 알레고리”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사막으로 내쫓긴 아이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조상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스라엘/다윗의 이야기는 팔레스타인인들에 관한 “국가적인 알레고리”가 된다.

작가는 2010년 출판사를 바꿔 소설을 다시 출간하면서 제목을 『다윗의 상처』에서 『예년의 아침』으로 바꿨다. 얼핏 보아서 아침이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니 밝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자기 땅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강요당하는 난민들이 난민촌에서 맞는 아침이 밝을 수는 없다. 난민촌에서 맞는 기약 없는 아침들이 어떻게 밝을 수 있는가? 그들의 삶에는 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언젠가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난민촌은 고향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공간이다. 문제는 그 ‘잠시’가 70여 년이나 지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아말은 그러한 상황 속으로 태어난다. 그래도 그녀의 유년 시절은 평화로워 보인다. 비록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잃은 충격으로 딸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줄 수 없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가 열두 살 때 아버지는 고향에 몰래 다녀오다가 총에 맞아 죽고 나중에는 어머니마저 죽는다. 유대인들은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의 부모와 조부모를 고향에서 쫓아내더니 그녀가 태어난 후에는 평범한 가족의 삶마저 만신창이로 만든다. 그것만이 아니다. 나중에 그녀가 임신 중일 때는 남편과 조카, 임신 중인 율케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의 총과 칼에 죽는다. 그래서 예년은 고통의 장소이고, 예년의 아침은 고통의 아침이다. 그곳은 고통의 장소이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그곳에 몰아넣고 틈만 나면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짓밟았다. 이 소설은 1941년에 시작되어 2002년에 끝나는데, 1941년이 소설의 출발점인 것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의 평화로운 삶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고, 2002년에 끝나는 것은 그때가 대학살극이 벌어진 시점이기 때문이다.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년 난민촌은 지옥이었다. 이스라엘군은 그곳에 들어와 학살

극을 벌였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죽였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술한 사람들이 죽어 집단으로 묻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졌다. 극악무도한 폭력이 행해지는 동안 그곳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외부인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조직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학살극이 끝난 후 “예년에 와본 적도 없고 희생자나 가해자한테 얘기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작성한 유엔의 공식 보고서는 대학살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도 “예년에는 대학살극이 없었다”라고 보도하거나, “이스라엘에 따르면 호전적인 사람들만이 예년에서 죽었다”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총으로도 죽고, 폭탄으로도 죽고, 유엔 보고서로도 죽고, 그들의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으로도 죽었다.

아말도 그 와중에 딸을 구하려다가 죽는다. 그녀의 딸은 엄마가 죽자 이렇게 울부짖는다. “그렇게 오랫동안 등을 돌려온 세계에서 어떻게 살죠? 엄마, 이것이 팔레스타인인의 운명인가요?” 정말이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기는 힘들다. 세계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에 등을 돌리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불법적 행위라고 비난하는데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구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었고 지금은 더 공격적으로 그러하고 있다. 사실 미국과 서구를 비롯한 세계는 비난하는 시늉만 하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죽어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자중하라는 소리만 형식적으로 반복할 뿐이다. 아말의 딸이 말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을 향해 등을 돌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팔레스타인 시인 마무드 다위시의 시 「대지가 우리를 틀어쥐고 있네」에 형상화된 실존적 삶 속으로 내던져져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대지가 우리를 틀어쥐고  
마지막 통로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팔다리가 찢기며 통과하려고 한다.  
우리는 마지막 국경을 지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새들은 마지막 하늘을 지나 어디로 날아가야 하는가?

다위시의 시구처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막다른 곳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자신들을 희생자로 내세운다. 지난 70여 년 동안 그랬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

는 이야기와 결이 다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공격하고 억압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2022년에 다린 살람 감독의 영화 『파르하』를 스트리밍하자 그들은 장관들까지 나서서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공격했다. 1948년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가족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허구가 아니라 목격자의 구체적인 증언에 근거한 것이었다. 안네 프랑크가 유대인들에 대한 가학적 행위를 목격한 것처럼, 팔레스타인인 소녀는 유대인들에 의한 가학적 행위를 목격했다. 『예년의 아침』이 증언하듯,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고향 땅에서 몰아내면서 엄청난 폭력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역사를 쓰고 이야기를 쓴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쓴 역사와 이야기를 소비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지난 70여 년 동안 자신들에 대한 나치의 가혹행위를 단죄하며 심지어 백 살에 가까운 단순가담자까지 처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치가 그들에게 그랬듯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역사 속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이 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다른 아이러니는 그러한 일이 다른 곳도 아니고 평화와 사랑의 사도 예수가 태어난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실에서는 물론이고 ‘이야기 전쟁, 담론 전쟁’에서도 진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다. 바로 이것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형상화한 『예년의 아침』 같은 소설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하라리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인간은 이야기를 믿는 동물이다. 🗣️



**사그라다 파밀리아 (Templo Expiatorio de la Sagrada Família)**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짓고 있는 로마 가톨릭 성당이다. 또한 '사그라다'는 스페인어로 성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었으며, 파밀리아는 가족을 뜻하기 때문에 성가족성당이라고도 불린다. 카탈루냐 출신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을 책임졌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의 일부이며, 2010년 11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성당에서 대성당으로 승격을 선포했다.

1882년 성당의 건축은 Francisco de Paula del Villar에 의해 시작되었다. 1883년 비야르가 사임하자 가우디가 수석 건축가로 취임하여 고딕 건축 양식과 아르누보 양식을 결합한 건축 및 엔지니어링 스타일로 프로젝트를 변형시켰다. 가우디는 그의 남은 생애를 프로젝트에 투입했으며, 1926년 73세의 나이로 고인이 되었을 때 프로젝트의 1/4, 즉 25%가 완료되었다. 가우디는 이 성당의 일부인 동부 성만 완성하고 서거하였다.

또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까탈루냐 모더니즘으로 지어진 최고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네오고딕 양식으로 만들었고 그 이후, 성당의 나머지 부분은 자연의 형태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성당의 내부는 나무처럼 기울어지고 나선형의 기둥으로 인해 숲을 닮아서 간단하고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우디는 이런 특이한 형태의 건축기법을 그가 지은 구엘공원이나 구엘 성지에서 검증한 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지을 때 사용하여 조형미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구조적으로 완벽한 건축물을 만들었다.

2023년 1월 현재 141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며, 비용은 관광객하고 신자들 현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수석 건축가인 조르디 파울리는 2015년 10월에 공사가 70% 완료되었으며 6개의 거대한 건물을 세우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타워와 대부분의 교회 건축물은 가우디의 사망 100주년인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장식 요소는 2030년 또는 203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 시작에 대한 단상 (4)

정현영 요셉, 중견사제연수원 연수사제



영화는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과 프랑스 두 곳에서 동시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의 방식이 대중 상영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고, 전체적인 상영방식이 그렇게 표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미국과 프랑스(유럽)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영화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영화를 보는 시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화의 산업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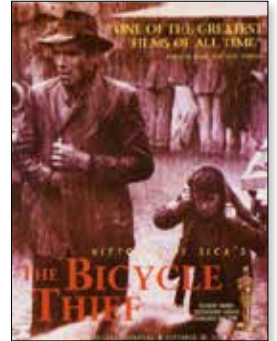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영화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후에 니켈로디언이라는 극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극장들은 5센트(니켈)의 입장료를 받고 일련의 단편들을 1시간 남짓 상영하는 전문극장들이었습니다. 니켈로디언 극장은 스토리가 있는 장편영화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영화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니켈로디언 극장은 적은 금액으로 노동자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오락거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화산업은 점점 커졌고, 소위 빅 파이브라고 하는 다섯 개의 메이저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독점에 반발한 독립영화사들도 생겨납니다. 이들이 성장하는데 세계 대전이 큰 역할을 합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성장하던 유럽의 영화산업을 멈춰 세웠고 수많은 영화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영화감독들이 주도권을 쥐기보다는 영화사의 프로듀서들이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큰 스튜디오들이 만들어졌고 더 화려한 볼거리와 이야기를 갖춘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두 차례의 엄청난 전쟁을 겪고 있던 유럽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영화는 꾸준히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탄생한 것이 **독일의 표현주의와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입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

전한 후에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은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표현주의는 이러한 독일의 상황을 반영했고, 화면은 어둡고 그로테스크했으며 내용은 절망적이며 비극적이었습니다. 네오리얼리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는데, 전쟁으로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영화 세트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벗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으로 다시 영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루미에르가 세상의 풍경을 찍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됐지만 서사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스튜디오로 들어갔었는데, 제작 환경의 변화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공간이 실제적인 공간(리얼리즘)으로부터 실제의 공간(네오리얼리즘)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영화는 비토리오 데 시카의 <자전거 도둑> (1948)입니다. 전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전단지를 붙이던 한 아버지가 자전거를 도둑맞은 후에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도둑도 자전거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자전거를 훔치다 들킨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실제의 거리에서 촬영되었고 생계의 간절함 때문에 자전거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모습과 끝내는 자전거를 훔치다가 군중들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질 위기를 맞지만 아들을 불쌍히 여긴 군중이 풀어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명확하게 선을 가르기는 힘들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양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비교적 벗어나 있었던 미국에서 영



자전거 도둑, 1948  
드라마 | 이탈리아 | 93분

화는 노동자의 애환을 달래주고 나아가 사람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오락거리의 기능이 컸던 반면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조차 불안했던 유럽에서 영화는 시대의 불안과 아픔에 공감하고 현실의 절망을 담아냈던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연속사진을 통해서 영화적 구상을 했다면 미국의 키네토스코프는 그것을 현실화시켰고 프랑스의 루미에르 형제는 대중 상영을 통해서 영화의 성격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양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영화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미국 영화가 전 세계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하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영화가 처음 출발할 때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역시도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예술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삶이건 공동체의 삶이건 아니면 현재의 삶이건 역사 속의 삶이건 모든 예술은 삶의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자기 반영임과 동시에 자기 반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 뿐 아니라 그것을 관람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화면 속으

로 들어가 지금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와 지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화는 <기차의 도착>처럼 엄청난 충격과 함께 시작됐기 때문에 아득히 오랜 기원을 갖고 있는 예술과 달리 명확하게 시대적 구분을 갖고 시작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영상을 담아내고자 했던 역사가 축적되어 있으며 그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영화 안에는 다른 예술들과 마찬가지로 이웃 예술들의 영감과 성과들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의 문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각자 따로 놀지 않고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의미를 공유하고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것처럼 예술작품도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영화는 초창기부터 편집과 미장센 등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왔고 이제는 관객들도 설명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위한 것이며 영화의 강력한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출발이었음에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미국과 유럽 영화에 대해

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미국 영화는 상업(대중) 영화, 유럽 영화는 예술 영화라고 하는 구분이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은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구분들이 너무 생소하거나 아예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화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내가 비록 예술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술 작품과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게 합니다. 예술은 늘 인간의 삶과 함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화는 다른 어떤 예술보다도 관객의 취향에 민감한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읽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영화 혹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화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전부라 아니듯이 주제와 취향에 맞는 영화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의 이야기인 영화를 어떻게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영화들 가운데 어떤 것은 참으로 신앙적이지만 교회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는 영화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상업 영화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신앙인의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 매혹적인 이스라엘 남부 - 네게브 광야지역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아브닷에서 친 광야를 마주하며 남쪽으로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닷을 떠나 약 30분 정도 이동하면 마크테쉬 라몬에 도착합니다.

마크테쉬는 이스라엘 남부지역과 시나이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분화구 모양의 땅으로, 화산활동이 아닌 침식으로 생긴 커다란 구덩이입니다. 이곳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되었다니 약 2억만 년 전의 땅이 노출이 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지형인지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방문자 센터로 갑니다. 15분 대기 후에 입장하라는 안내를 받고 들어가니 웬 우주인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Ilan Ramon'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그의 본 직업은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48세의 늦은 나이로 콜롬비아호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로 돌아오던 중에 비행선의 연료탱크 문제로 그와 다른 승무원 6명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이 된 그의 이름인 '라몬'을 이곳 지명과 연결지는 것 같은데, 지질학 설명을 들으려고 방문한 곳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든 사람과 연결시키려는 방법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란 라몬의 소개를 들은 후 지질학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모험 위에 빛을 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이 40km, 폭 2-10km, 깊이 500m의 구덩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설명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אִילַן רַמון' 베레쉬트 바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창세기 첫 구절인 '한 처음에 ... 창조하셨다'입니다. 암모나이트가 살던 시기가 고생대에서 백악기까지이니 지구의 대륙이 한 덩어리였던 '판게아'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정말로 세상이 만들어지던 시대이구나 동감하게 됩니다. 뭐 아브라함 이야기 정도는 들을 수 있겠다 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창세기 처음의 문장을 들으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차를 타고 구불구불 구덩이로 내려가서 그 땅

을 밟아봅니다.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그냥 깊고 넓게 파진 구덩이겠거니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았던 때의 땅이라고 생각해보니, '나를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시구나'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이곳은 밤하늘 관측에 방해되는 빛이 없고 고도가 약간 높기도 하며 광야 지역이어서 까만 하늘에 보석같이 빛나는 별들이 아주 잘 보이는 곳입니다. 도입부의 우주인 이야기가 생각도 나지만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던 주님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우주만물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자연에서의 목상을 깊이 해봅니다.

마크테쉬 라몬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남북을 가로지르는 동쪽 계곡지역의 90번 도로에 합류하여 이동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황무지가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구나'를 깨닫게 해 줍니다. 이스라엘 땅 절반 이상은 이와 같은 광야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약 470km, 동서의 길이는 가장 긴 쪽이 135km 되는, 길쭉한 고구마 모양을 하고 있는 곳





↑ 마크테쉬 라몬 - 암모나이트 절벽



↑ 마크테쉬 라몬

입니다. 이런 곳의 절반이 넘는 남부가 반사막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 **네게브 땅**에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척박한 곳에 살고 있는지 측은한 마음이 살며시 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천막을 짓고 돌아다니며 살았다는 역사를 기억해보면 불쌍한 마음을 넘어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유대인들이 땅 없이 2천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지독함이 이곳 광야에서 살아남은 유전자 계승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이는 하우스 농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다 **‘요트바타’**라는 키

부츠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젖소 우유로 아주 유명한 키부츠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지나간 **‘옷바타’**라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슈퍼에서 볼 수 있는 요트바타 우유가 바로 이곳 황무지 광야의 농장에서 생산됩니다. 키부츠에서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요트바타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꼭 맛봐야하는 필수코스입니다.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도 유명합니다. 그 달달함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다시 남쪽으로 달려가

다 보면 이스라엘 최남단인 **에일랏**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에 오른쪽으로 이집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입간판이 보입니다. 여기는 **‘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동차 핸들을 꺾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분 정도 운전해서 들어가니 입구가 있습니다.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도를 받아 다시 차로 이동합니다. 팀나는 **고대 구리광산**입니다. 워낙에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공원이니 차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차가 없는 경우나 다른 방법으로 둘러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자전거를 대여해주기도 합니다. 햇볕이 비교적 덜 강한 동절기에는 가능할지도 모

르지만 평균기온이 40도가 웃도는 여름에는 좋지 않은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약 기원전 5천 년부터 에돔인들에 의해 구리가 채굴되기 시작하여 로마시대까지 이어지고 기원후 7세기의 무슬림시대까지 이어진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리광산입니다. 이곳 저곳에 구리채굴의 흔적들이 잘 남아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붉은색, 흰색, 검은색 등 각기 다른 색감의 돌산 또는 돌기둥과 그것들이 풍화하여 만들어진 고운 모래들이 조금 전에 다녀온 마크테쉬 지역 못지않게 이스라엘에 이런 곳이 있다는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차로 한바퀴 돌아본 후 마지막으로 성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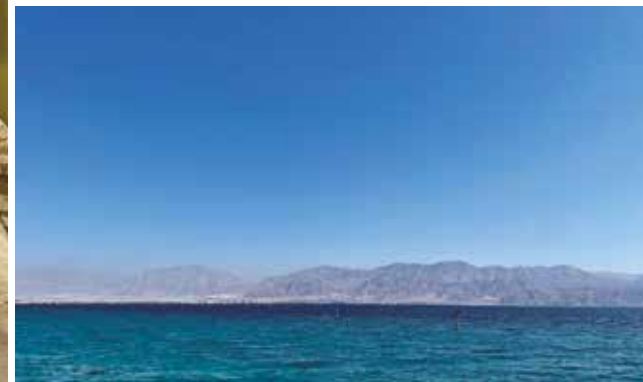
↑ 마크테쉬 라몬  
↓ 팀나



↑ 팀나



↑ 팀나 성막 모형 내부



↑ 팀나 성막 모형  
↓ 홍해바다

모형에 도착하였습니다. 팀나공원의 하이라이트! 광야의 성막 모형입니다. 이곳은 한 시간 단위로 현지인 가이드 설명과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만든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복원하였다고 하는데 외관상으로는 별로 볼품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주변의 광야와 어우러져 현장감을 꽤 깊이 안겨주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서 보는 계약의 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 계명이 씌여져 있는 돌판, 만나가 인상깊게 보였습니다. 이들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한 구리가 이곳에서 채굴된

구리였겠다 싶었으며 구리 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놓은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짧게는 4일, 길면 2주 정도를 가이드 또는 인솔자로 일했었는데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도 더러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식이 잘 맞지 않거나 잠자리가 불편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40년을 인솔한 모세 성인을 떠올리며 전구를 청하며 ‘인솔자의 주보 성인은 모세 성인일 것이다.’하며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팀나 공원을 둘러보고 다시 90번 도로를 만나 **에일랏**으로 향합니다.

코발트 블루와 터키 블루가 절묘하게 그려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홍해가 요르단 땅의 예돔산지와 함께 황홀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곳은 텔아비브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기도 합니다. 밤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늘의 별만큼은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별빛이 깜깜한 광야를 지나온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해변을 따라 여러 개의 호텔이 들어서있는데 전형적인 휴양지의 모습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의 사람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쇼핑물을 다니며 두 손을 무겁게 그러나 마음은 신나게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은 면세지역이

어서 쇼핑할 맛이 납니다. 기분 좋은 건조한 바닷바람이 마음의 모든 근심을 훌훌 털어주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있는 식당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바닷가 지역이어서 생선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가 주는 시원함, 사해가 주는 특별함, 갈릴래아 바다가 주는 따뜻함도 좋지만 홍해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기분 좋은 느낌은 뭐라고 표현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광야의 아름다움과 함께 홍해에서 기분 좋은 휴식!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 정석의 이 도시(7)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과 교외지역

## 끊어진 선과 크리스토폴 성인, 두 공원과 국경도시 나르바

정석 예로니모\_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에스토니아도 오래 전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겪었다. 바다에서 멀지 않은 탈린시 북쪽, 해양박물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가레트 공원에 서로 닿지 못하고 끊어진 선 모양의 기념비(The Broken Line Monument)가 세워져 있다. 1994년 9월 28일 저녁 에스토니아 탈린항을 출발해 스웨덴 스톡홀름을 향하던 배 ‘에스토니아호’가 항해 6시간 만에 침몰해 승객과 선원 989명 가운데 852명이 사망했던 해난사고를 기억하는 조형물이다. 시점과 종점을 잊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긴 모습이 애달프고 애통했다.

탈린 시청 앞 광장을 천천히 걷는데 의자들이 눈에 들어온다. 기다란 통나무를 철재 받침대 두개가 양쪽에서 받치고 있는 아주 간결한 디자인이다. 분리해서 보관할 경우 부피도 줄어 효과적이겠다. 니콜라스 성당 의자도 독특했다. 기차의 객실 의자처럼 돌려 앉을 수 있게 디자인했다. 성당의 의자인데 왜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 궁금했다.

탈린시에 있는 니콜라스 성당은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걸 복원해 현재는 미술 전시와 음악회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생의 좋은 예다. 전시된 많은 작품들 중에 크리스토폴 성인이 눈길을 끈다. 에스토니아 조각가 토비야스 하인제(Tobias Heintze, 1593-1653)의 작품이다.

여행자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크리스토폴 성인의 작은 상을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성인의 원래 이름 ‘크리스토폴로스(christophorus)’는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간다는 뜻이다. 작품을 보니 지구를 메고 걷는 모습이였다. 온 세상을 두 어깨로 짊어지고 걷는 성인의 모습이 애잔하다. 어디 크리스토폴 성인뿐일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짐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한 세상을 살아간다. 그 짐이 내가 닦고자 하는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신이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동지애가 몽글몽글 솟는다.



↑ 끊어진 선



↑ 탈린 시청앞 광장의 벤치 디자인

“크리스토폴 성님, 함께 갑시다잉!”

탈린 여행의 마무리는 공원 돌아보기였다. 탈린시 동쪽 가까운 교외에 ‘카드리오그 공원’이 있다. 과거에는 궁전과 정원으로 쓰이던 곳이 개방되어 지금은 박물관과 공원이 되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public park)’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왕이나 귀족들만 이용하던 ‘정원(private garden)’이 시민혁명 이후 개방되어 공원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 도시나 당연히 공원을 만든다.



↑ 크리스토폴 성인

나무가 울창한 숲이 끝없이 이어지고, 아이들 놀이터와 테니스 코트도 있다. 아이와 함께, 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 표정이 한가롭다. IT 강국답게 잔디 깎기 기계가 저 혼자 돌면서 너른 잔디밭 잔디를 깎는다. 동상이 서있어 가보니 조각가다. 정치인들 말고도 제 분야에서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조각가 이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다.

참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풍성한 혜택으로 물려받은 산과 구릉과 강과 실개천을 함부로 깎고 메우고 자르고 막지 말고 자

연의 건강한 생태가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조심조심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다. 개발을 할 때에도 여기저기 닦치는 대로 개발하지 말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오밀조밀 알차게 개발하고, 집을 지을 때도 괜히 초고층 유리 건물로 걸멋 내지 말고 가급적 낮고 단단하게, 실속과 내실 있게, 소박하고 참하게 지으면 된다. 멋 내다 얼어 죽고 멋 내다 떠죽지 않게 말이다.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은 지구가 참다 참다 더는 참을 수 없어 화를 내뿜는 것일지 모른다. 전 세계가 오래 전부터 지구가 아프다는 걸



↑ 카드리오그 공원

알아차리고 참회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로 길을 바꿨다. 우리도 더는 멈칫거리지 말아야 한다. 뭐가 중한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다.

수도 탈린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라헤마 국립공원’에도 가보았다. 국토면적의 3분의 1이 울창한 숲과 늪지대인 나라 에스토니아답게 공원 면적이 서울보다 크고 숲과 늪지대가 잘 보존되어 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처럼 에스토니아도 다르지 않다. 오래된 역사도시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자연생태를 있는 그대로 지키려 애쓰는 나라다. 오죽하면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소에게 방귀세까지 부과했을까.

2박3일 짧게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과 교외 지역을 돌아보면서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걱정되는 것도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역사도시이니 관광객들이 밀려올 텐데, 옛 도심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남을까?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영화세트처럼 한 꺼풀만 살아남고 뒷골목들은 사람이 더는 살지 않는 빈 곳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오래된 도시가 절로 쇠퇴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에 새 도시를 만들어 사람과 활력을 빼앗아 가면 옛 도시는 금방 기력을 잃고 죽어간다. 탈린 옛 도시 바깥을 보니 여기저기 새 건물들이 불쑥불쑥 솟고 있다. 건물의 생김

새나 덩치도 그렇고, 길과 사람에 대한 태도 또한 오래된 건물들과는 사뭇 다르다. 희망도 보여주고 걱정도 주는 참 묘한 도시 탈린이다.

지난 일주일 발트3국 여행을 잘했다. 제일 남쪽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여행을 시작해 제일 북쪽 탈린까지 세 나라의 여러 도시와 지역을 돌아보며 많이 배우고 느꼈다. 이제 에스토니아 동쪽 끝 도시 '나르바'에 가서 국경을 넘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여정만 남았다.

나르바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에스토니아는 어깨를 맞대고 있다. 멀리서 보면 나르바 성과 강 건너 이반고로드 성이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익숙한 동상이 구석에 보인다. 레닌이다. 사람들이 오가고 모이는 길목이나 광장이 아닌 귀퉁이 컨테이너 박스 앞에 홀로 서있는 레닌이 처연해 보였다.

탈린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예쁜 꽃을 건 가로등이 나르바 시내 거리 풍경을 밝게 한다. 러시아 정교회 성당 몇 곳을 둘러봤다. 가톨릭 교회의 성당과 달리 의자와 제대도 없이 선 채로 서서 시간 미사를 드린다고 하니 정통(orthodox)을 지킨다는 일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 라헤마 국립공원

바닷가 작은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저녁 해가지는 바닷가를 걸었다. 경사가 완만한 바다였다. 모래밭에서 한참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풍덩풍덩 바다에 뛰어들어 신나게 논다. 신나게 노는 여기 아이들 모습을 보면 한편으론 반갑고, 그렇게 놀지 못하는 우리나라 아이들 생각이 나서 찝해진다.

발트 3국 여행이 이렇게 끝났다. 이제 국경을 넘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간다. 🇷🇺



↑ 러시아와 만나는 국경 도시 나르바



↑ 컨테이너 박스 앞 레닌 동상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 예수님께 반지를 받은 성녀들: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와 시에나의 카타리나

윤인복 소화테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St. Catharina, 4세기경)는 10세기경부터 동방 교회에서 높이 공경해오던 성인 중의 한 명이다. 그러나 그녀에 관한 분명한 자료보다는 전설적

인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다. 『황금전설』에 따르면, 카타리나는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실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미모가 빼어났던 그녀는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지식을 쌓는데 매우 열성적이었다. 소녀 시절,



스테파노 다 제비오, <장미정원의 성모마리아>, 1420~1435년경, 카스텔베키오 박물관, 베로나, 이탈리아

카타리나는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마음을 다졌고,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이 평생을 순결한 여인으로 살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악명 높은 로마제국 막센티우스 황제와 대항하게 되었다. 황제는 젊고 아름다우며 교양 있는 그녀에게 청혼하고 이교도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할 것을 마음먹은 그녀는 황제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이에 황제는 위대한 철학자 50여 명을 불러 성녀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게 하였다. 하지만 카타리나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여 오히려 이방인 철학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켰다. 이 일로 크게 분노한 황제는 개종한 철학자들을 화형에 처했고, 그녀는 굶어 죽도록 감옥에 투옥되었다. 12일 동안 독방에 갇힌 그녀에게 비둘기가 음식을 날라다 주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발현하시어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한다. 그러자 황제는 큰 못을 박은 바퀴로 그녀를 고문하고 사형시키고자 했지만,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다. 오히려 구경꾼 여러 명이 그 바퀴에서 튕겨 나온 못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 카타리나의 꿈은 신앙과 인내심은 수많은 군인을 경악케 하고, 그중에서 2백여 명이 개종하였다. 결국 카타리나는 참수형에 처했는데, 이때 참수된 목에서 피가 아닌 우유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녀의 시신은 시나이산으로 옮겨졌고 그곳에 정교회 수도원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이 수도원은 성녀 카타리나 수도원으로 유명하다.

성녀 카타리나는 작품 속에서 주로 머리에 왕족임을 나타내는 왕관을 쓰고 한 손에는 승리 또는 순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잎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녀에게 가해질 고문 도구인 못 박힌 바퀴나 목을 뱀던 칼이다. 그리고 책과 다른 기술 도구들은 카타리나의 지혜와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녀는 지혜와 교육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의 영적 아내로, 세례 후 그녀의 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성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는 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성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고 나타나기도 한다. 그녀는 성모마리아의 무릎에 앉아 있는 아기예수와 함께 등장한다.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활동한 스테파노 다 제비오(Stefano da Zevio, 1379년경~1438년경)는 아름다운 정원에 성모자와 함께 있는 성녀 카타리나를 그렸다. 성모 마리아는 옥좌가 아닌 풀밭 위에 앉아 있다. 주님의 여종으로 '겸손한 마리아'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아기예수를 무릎에 앉힌 그녀의 시선 역시 다소 곱하게 아래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성모가 앉

은 바닥은 하늘의 여왕으로서 풀밭 위의 옥좌를 암시하는 것이며, 그 모습 또한 우아하기 그지없다.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어머니의 무릎에 앉은 아기 예수는 손을 입에 대고 있는 모습이 매우 사랑스럽고, 그의 눈길은 성녀 카타리나를 향하고 있다. 빨간 장미와 흰 장미가 달린 덩굴로 에워싼 정원은 금색 천에 수놓아진 것처럼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마리아의 꽃’이라 불리는 이 장미의 붉은 색은 사랑과 고통을 상징하고, 장미의 하얀 색은 순결을 상징한다. 또한 정원에는 불멸과 부활을 상징하

는 공작들이 배치돼 있다. ‘불멸’은 공작의 살은 죽은 후에도 썩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며, ‘부활’은 공작이 매년 가을이 되면 털이 벗겨졌다가 봄이 오면 다시 자란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공작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 장면에서 주로 등장한다. 그림에 서처럼 분리된 정원, 즉 ‘닫혀진 정원(hortus conclusus)’은 범접할 수 없는 마리아의 순수함, 또 영원한 동정 마리아를 위한 낙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도상학은 로마 제국 시절, 귀족과 왕족의 저택 벽화에 피안의 세계를 암



파르미자니노, <성녀 카타리나의 신비한 결혼>, 1529년경, 내셔널 갤러리, 런던

시하는 신비주의적인 정원 풍경화에서 비롯되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정원의 맨 앞에 화려한 금관에 귀족 차림새를 한 성녀 카타리나가 앉아있는 것이다. 그녀의 순교의 상징물인 바퀴가 놓여있다. 카타리나 역시 하느님께 봉헌된 순결한 여인으로 낙원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작품이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성녀 카타리나가 아기예수에게 반지를 받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탈리아의 매너리즘 화가로 대표하는 파르미자니노(Parmigianino, 1503~1540)는 16세기에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 속에서 세련되고 우아한 매너리즘 회화의 특징을 느낄 수 있다. 빛이 가득한 방에 아기 예수는 성녀 카타리나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있다. 성모 마리아는 우아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자신의 무릎에 앉은 아기 예수와 눈을 맞추고 있다. 오른쪽에 화려하고 세련된 옷을 입은 카타리나는 우아하게 머리를 올리고 한껏 보석으로 장식하고 아기 예수에게 성스러운 혼인을 상징하는 반지를 받고 있다. 카타리나의 다른 한 손은 그녀가 고문당한 도구인 커다란 못이 박힌 바퀴 위에 놓여있다. 맨 앞에 요셉은 이 사건의 증거자처럼 지켜보고 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

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 24)

###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이탈리아의 수호성인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St. Caterina da Siena, 1347-80)는 1347년 이탈리아 시에나의 부유한 가죽 염색업자의 스물다섯의 자녀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다. 그녀 역시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를 위해 동정녀가 될 것을 결심했다. 그 까닭은 그녀가 6살 때, 한 도미니코 수도회 교회에서 성인들과 함께 있는 옥좌에 앉은 예수님으로부터 축성을 받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세에 도미니코 제3회에 가입했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내며 복음을 실천하는 수도회였기에 집에서 최소한의 대화를 나누며, 기도와 단식하며 지냈다. 이때부터 카타리나는 그리스도와 마리아, 성인들에 대한 환시와 악마적인 환시도 일어났다고 한다.

기도 생활 3년이 지난 후, 1370년에 카타리나는 집에서 나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헌신했다. 또한 그녀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20세 때 이미 카타리나의 영적 능력은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 무렵 그녀는



영적 체험으로 그리스도와 신비의 결혼식을 맺었다고 전한다. 이 때문에 화가들은 아기 예수가 성녀 카타리나에게 결혼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을 많이 그렸다.

**프라 바르톨로메오**(Fra Bartolomeo, 1472-1517)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신비로운 결혼식 장면을 원래 산 마르코 성당의 성녀 카타리나의 제대화를 위해 제작했다. 이 작품은 중세부터 사용된 주제로 동명의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에 관한 일화와 유사성을 가지며,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신비

로운 결혼에 대한 특이한 도상을 보여준다. 등장인물들은 천사들이 치켜든 커튼 아래 교회의 벽감 안에 반원형을 그리며 자리하고 있다. 중앙에 성모자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베드로, 로렌조, 스테파노, 아시아시의 프란치스코, 형제애를 나타내며 서로를 포옹하는 도미니코, 바르톨로메오와 두 명의 순교자가 서 있다. 화가는 기념비적 특징과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이끌며 등장인물들의 동작을 다양화했다. 아기예수는 소박한 차림에 무릎을 꿇고 합장한 성녀 카타리나에게 반지를 건네주고 있다.

또한 성녀 카타리나의 ‘그리스도와 신비의 결혼식’만큼이나 자주 그려진 주제는 그녀가 황홀경에 빠진 장면이다. 이탈리아 화가 폼페오 바토니(Pompeo Batoni, 1708-1787)가 그린 황홀경에 빠진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베르니니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황홀경 장면을 제작한 것처럼 로마 바로크 미술의 성인 도상(圖像)에서 영향을 받았다. 1375년에 카타리나가 피사의 성녀 카타리나



프라 바르톨로메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신비한 결혼식>, 1511년, 루브르 박물관, 파리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오상 성흔을 받았다. 도미니코회 수도복을 입은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으로부터 오상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상처로부터 쏟아지는 빛줄기는 그녀의 손과 가슴, 발에 각각 이어진다. 그녀의 양손에는 작은 성흔이 새겨있다. 거룩한 빛에 카타리나는 몸을 혼자 가눌 수 없었고, 하늘에서 두 명의 천사는 그녀를 지탱하고 있다. 그녀 아래 작은 아기천사는 시에나의 젊은 여인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백합을 들고 있다. 왼쪽에서 있는 천사는 손에 가시관



폼페오 바토니, <시에나의 카타리나의 황홀경>, 1743년, 빌라 구이니지 박물관, 루카, 이탈리아

을 들은 채 우리를 카타리나의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초대하고 있다. 가시관은 그녀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성녀 카타리나를 의미한다.

성녀 카타리나가 오상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는 네게 지식과 웅변의 은혜를 줄 것이니, 여러 나라를 다니며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내 소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그녀는 당시 치열했던 교회의 분열을 종식하는 데 기여했다.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국 군주와 고위 성직자들을 방문하며 대립과 갈등 상황을 조율하여 평화를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오 9세를 설득하여 아비뇽 유수에서 벗어나 로마로 돌아오도록 했으며, 교회의 쇠신을 위해 노력했다. “당신께서 제 안에 창조하신 외적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모상 안에서 쉬고 당신의 모상으로 살기 위하여, 나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부드럽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살게 하소서.”(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기도 중) ㉠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3년 직장공동체 봄 피정

일상을 떠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분의 사랑과 기쁨에 젖어들 수 있는 가톨릭직장인 피정을 실시합니다. 직장공동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마태 8, 13)
- 일 시: 2023. 3. 11(토), 10:00~17:00
- 장 소: 복자사랑 피정의 집
- 회 비: 30,000원
- 접수마감: 3. 2(목) 17:00 (선착순 50명)

### 2023년 직장공동체 견진교리반 모집

바쁜 일상과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과 직장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견진교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견진 교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공동체는 직장사목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기간 : 5. 22(월) ~ 6. 26(월), 매주 월 20:00~21:00 (총 5회)
- 교리장소 : 가톨릭회관 205-3호
- 교육비 : 30,000원 (교재대금, 사진비, 장소사용료, 꽃사지 등)
- 접수마감 : 5. 10(수) 17:00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견진성사 : 2022. 7. 2(주일), 13:30



###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 연습/미사: 매주(금) 19:30/둘째(금) 20:00,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단장 010-5760-6638



# 키작은 밀

(*Triticum aestivum subsp. aestivum*)



우리나라의 토종밀로 일반 밀에 비해 50~80cm 정도로 키가 작아 얇은뎅이 밀, 난쟁이 밀이라고도 불린다. 세계 밀 종자의 80%가 키작은 밀을 개량해 만들어졌다.

누룩, 전, 고추장, 된장, 면과 같은 우리 전통음식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된다. 황해도, 경기도, 충남,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재배되어왔다. 추위에 강하고 숙기가 늦으며, 낱알이 적색인 것이 재래종 밀의 특징이다.

작가 Jae  
KMO캐니컬아트 대표  
미국 보태니컬 아트 작가협회(ASBA) 멤버

씨앗제공  
천주교 농부학교 13기 서지영 벨마나

우리농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우리농과 함께 생명의 밥상을 차려보세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통해 농민들은 생명농업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은 안전한 생명농산물로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며 더불어사는 생명공동체 세상을 만드는 우리농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우리농장보기(모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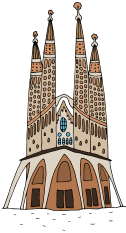


우리농 법인 홈페이지

@seoulwurinong

facebook.com/wrn.kr

(사)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Sagrada Família**  
basilica, Barcelona, Spain

Alternate titles: Church of the Holy Family, Expiatory Temple of the Holy Family, Templo Expiatorio de la Sagrada Família.

Sagrada Família, in full Templo Expiatorio de la Sagrada Família, English Expiatory Temple of the Holy Family, Roman Catholic minor basilica in Barcelona, Spain, designed by Antoni Gaudí. Begun in 1882 and still unfinished in the first quarter of the 21st century, the Sagrada Família, notable for its tactile organic form, is one of Barcelona's most famous landmarks.



[www.catholicworkers.or.kr](http://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mailto:gikjang@catholic.or.kr)